

다카사고 역사 투어 5

다카사고 지역은 헤이안 시대(794~1185) 이전부터 모래사장에 푸른 소나무 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해안 풍경 덕분에 휴양지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다카사고 지역은 일본에서 '인연 마을'(무스비노마치)로도 알려져 있으며, 오랫동안 연인들과 행복한 결혼을 바라는 이들을 매료해 왔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마을 구획은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에도 시대(1603~1867) 후기부터 쇼와 시대(1926~1989)에 지어진 건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시기의 건물에는 지역의 사업가이자 발명가였던 구라쿠 마쓰에몬(1743~1812)의 후손이 살던 옛 저택이 포함됩니다. 그 외에 구 다카사고시 소방서 청사와 소네 덴만 신사, 주린지 절 등의 문화적 건축물도 있습니다.

우메가에유

1950년대까지 다카사고 지역에서는 집 안에 목욕탕이 있는 것은 드물었습니다. 당시 시내에는 7개의 목욕탕이 있었는데, 지금도 영업하고 있는 곳은 우메가에유뿐입니다. 건물의 외관 및 내부는 쇼와 시대의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입구는 모르타르로 되어있으며, 안쪽에 벽돌로 된 증축 부분은 인기 있는 사진 촬영 장소입니다. 목욕물을 끓이기 위해 지금도 장작을 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다이쇼 시대(1912~1926) 후기에서 쇼와 시대 초기에 지어졌으며, 현재의 소유주가 1943년에 구입했습니다. 목욕탕은 목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영업합니다(오후 3시 30분에서 오후 11시까지).

구 다카사고 은행 본점(현 상공회의소)

청일전쟁(1894~1895)에서 일본이 거둔 승리는 경제성장을 불러왔습니다. 다카사고 저축은행은 1896년에 설립되었으며, 1907년에 다카사고 은행으로 개명했습니다. 현재의 건물은 1932년에 다카사고 은행 본점으로 건설되었으며, 1980년에 건물은 다카사고 상공회의소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고전 건축으로는 드문 건축물로, 2017년에는 국가등록 유형문화재 및 효고현 경관형성 중요건조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구 다카사고시 소방서 청사

철골 콘크리트 2층 구조로 보강된 이 건물은 1935년에 관공서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1층은 소방차 차고이며, 2층은 사무실이 있고 옥상에 철골로 된 소방망루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남단에는 장식용 맞배지붕이 있는 단층 파출소가 병설되어 있습니다.

소방서는 2015년까지 다카사고시 소방서 분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내진 보강을 거쳐, 침수 대비용 모래 자루 등의 자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카사고 지역의 소방 역사를 전하기 위해 휴일에는 건물 2층이 일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국가등록 유형문화재 및 효고현의 경관형성 중요건조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